

2019년 광주문화예술교육기반구축사업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
심사 총평

2019년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동네예술배움터 광주Re’ 지원사업의 심사는 신청 단체와 지원 재단, 국가적 제도 모두 풍요롭지 못한 현실의 아쉬움을 갖게 했습니다.

지원서의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주제와 생활적 근접영역에 대한 사전탐구가 부재하였고, 단편적인 아이디어의 나열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전탐구, 교육철학, 지역 현장 전문가의 협력의 부재는 내용을 빈약하게 하였고 기획서에 기술된 언어사용도 주어와 서술어가 없거나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며 자신만의 언어라기보다 일반적이고 상투적인 언어로 개별적인 독창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정한 장르의 강습이나 자격증 제공은 이 지원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광주문화재단에서도 활동단체와 강사님들께 지속적인 조언과 연수를 따뜻한 마음과 방식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언어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기획서 양식의 재설계를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모두 가까이, 천천히, 애정 어린 활동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심사위원장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